

8월 Market Index			
코스피	2594.36	코스닥	778.24
	(-16.02)		(-2.77)
금리 (미국 9년)	2.932	환율 (원-달러)	1346.00
	(-0.028)		(-0.70)

흔들리는 전자업계 투톱, 재도약 기회 만든다

삼성 경쟁력 회복·조직쇄신 LG 구독·D2C 등 사업 다변화

(소비자 직접 판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고전 전영현 부회장, 이례적 사과 전 사업·조직문화 쇄신 약속
LG전자, 해상운임 폭등 영향 전년 대비 영업이익 20% 하락 B2B·온라인사업 확대 추진

국내 전자업계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분기 나란히 어닝쇼크(실적충격)를 기록하며 업계 위기론이 급부상했다. 삼성전자는 범용 D램 수요 부족 등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사업이 고전한 영향이 실적 악화 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전영현 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올리며 전 사업은 물론 조직문화까지 쇄신하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음에도 해상운임 폭등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며 영업이익이 20%나 떨어졌다. 이에 LG전자는 주력인 B2B 사업은 물론 지역별 제품을 다변화하고 온라인 사업을 확대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전 사업 쇄신
지난 8일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4.4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증권가 전망치인 10조4000억원을 크게 하회하는 어닝쇼크 수준이다. 이번 실적 악화는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경쟁력 부족이 주

요원인으로 꼽힌다. 증권가는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이 2분기 6조4510억원에서 3분기 4조원대로 내려앉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진한 실적에 대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HBM3E를 엔비디아에 공급키로 한 일정이 지연되면서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과 파운드리도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전 사업은 물론 조직문화 쇄신을 통해 실적 반등을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초심을 찾아 혁신을 이뤄내는 것은 물론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두고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메모리사업부의 경쟁력을 되살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연구소의 메모리 개발 인력 일부를 사업부로 전치 배치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수뇌부를 향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최근 위기에는 ‘리더십 부재’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재계는 내다봤다. 한 재계 관계자는



북한, 남북 육로 완전 단절 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임진강 독개다리에서 관광객들이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철교 교각과 임진강 철교를 살펴보고 있다.북한은 이날부터 남한과 연결된 도로·철길을 단절하고 방어 구조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인민군(북한군) 총참모부는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0월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뉴스1

“최근 삼성의 위기는 단기간에 실적 개선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말 인사 때 이재용 회장이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 사업 등 사업 다변화
LG전자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운임 등

이 폭등하면서 어닝쇼크를 맞았다. 전일 LG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 22조1769억원, 영업이익 7511억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9% 하락했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4 제약 & 바이오포럼’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 반려동물 위한 헬스케어

<메트로경제>가 10월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를 주제로 ‘2024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증가 추세입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했고, 2023년엔 전체 인구의 30% 가량이 1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2021년 3조4000억원에서 2027년 6조원 규모로 급팽창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계청에서는 2020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란 질문을 새로 추가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 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을 위한 음식과 건강관리식품에서부터 치료제,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상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치약, 샴푸와 같은 세정제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치료제가 동물에게 안전하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2024 제약&바이오포럼을 통해 반려동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계와 관련 산업계의 기술동향을 점검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계뿐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가구에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24제약&바이오포럼
- 일시 : 2024년 10월 23일 오후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제 :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 기조강연 :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
- 강연 :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 최진식 그라스메디 대표이사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경현태 아우라케어 대표이사 유성지 애니멀 프리이니셔티브 대표 임윤지 VIP동물의료센터 암센터원장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4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韓 ‘WGBI’ 편입 성공... 글로벌 자금 70조 유입 기대

(세계국채지수)

FTSE 러셀 WGBI에 韓 추가 예정 1년 유예기간 거쳐 내년 11월 부터
한국이 세계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된 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룬 성과로, 국내 시장에 글로벌 자금 유입을 통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채권국

가분류 반기리뷰에서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FTSE 러셀에 따르면 이번 검토 결과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은 1 단계에서 2단계로 재분류 됐다. 편입 시점은 1년가량 유예기간을 거친 후인 ‘내년 11월’부터다. FTSE 러셀은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수준을 고려해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글로벌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

수(GBI-EM)와 함께 ‘글로벌 3대 채권지수’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WGBI 추종 자금 규모는 약 2조5000억달러로 추정된다. 한국은 2022년 9월 ‘관찰대상국(WGBI 편입 후보국)’ 지위에 오르며 WGBI 편입을 위한 첫 발을 디뎠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500억 달러 이상) ▲국가신용등급(S&P 기준 A-이상·무디스 기준 A3 이상) ▲시장 접근성 등을 검토해

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은 관찰대상국 지정 때부터 정량적 기준인 국제 발행 규모와 국가신용등급은 모두 충족했지만 ‘시장 접근성’ 부문에서 기준 미달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에 정부·금융당국은 그동안 국제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지수 편입에 주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WGBI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에 나섰다. <3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뉴스타파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 “한중 각급 대화채널 복원 중... 문제 발생시 즉각 대화” /사진 뉴스스
▲ 한미일 북핵대표 “북 최고인민회의 평가 공유”

▲ 총리실, 대한체육회 비위 첩보 접수... 8일부터 조사 착수
▲ 김용현, 방첩사령관 태도 지적에 “군복 입었다고 할 말 못하면 병X”



▲ 민주당, 한글날 맞아 “윤, 김 여사 국정혼란 다잡고 공사 구분하길”
▲ ‘이중투표 권유’ 기소된 신정훈 의원 “지역민에게 송구” /사진 뉴스스